

교차로

3국 불교회의 남북회담 보고회

월주스님(한국 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하림사에서 각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1~24일까지 개최됐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및 남북불교회담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룡사·신우대서 설법

근일스님(영주 부석사 주지)은 지난 18일 구룡사에서 '참선수행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19일에는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을 주제로

중양승가대에 10억 회사 서주스님



"이제 사부대중에게 빛을 조금 갚았다는 기분입니다. 그동안 승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양승가대 발전기금으로 부산 연산동 소재 임야 7천여평을 매각해 우선 10억을 기탁할 예정이라는 서주(西州)스님(부산 사직동 소림사 주지)은 인제 양성에 자신이 동참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인재 양성 동참 소망 이뤄 기뻐"

사찰의 지방강원 등이 일부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교육체계 등이 원활하지 못해 명실상부한 4년제 승려 전문대학을 지금껏 소망해 왔다는 서주스님은 불교계가 과거 승려 인재 양성을 등한시 해온 것이 늘상 안타까웠다면서 "승려가 신도들에게만 도제양성, 복지사업 등의 불사의 도움을 요청하던 지난날 여러 예를 보면 모두 유무시의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한다. 불우청소년들에게 수차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스님은 지난 70년부터 소림사 주지를 맡아오고 있다. <박병근 기자>

로 안동 신우대학 법회사 강연했다.

교직원 증강법회사 법문

진철스님(통도사 자비원 원장)은 지난 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교직원 증강법회사에 참석 '21세기의 불교가 나아가길'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효봉사 자료 모집

현호스님(효봉사 사법어집 간행 추진위원장)은 효봉사 사법어집 재간행을 위해 법문 서간문 시서화 사진 등 관련된 자료를 모집한다. 법어집은 10월경 발행할 예정이다.

한중불교 상호교류회의

원행스님(중앙종회의원)은 지난 11일 중국 불교협회를 방문, 중국 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을 만나 한중불교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등을 협의하고 신도들과 함께 북경 광화사 등을 참배한후 19일 귀국.

구룡사 열반상 점안식 봉행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구룡사 극락전 열반상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대전지부서 법문

법현스님(불교 레크리에이션 포교회장)은 지난 12일 대통령 대전지부가 주최하는 연합법회에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청년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인간문화재 인정서 받아

김중곤(사진위)·이기춘씨(중요무형문화재 제26·86-가호)는 지난 1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영산출다리기'와 '문배주' 기예능보유자로 인간문화재 인정서를 수여받았다. 이밖에 김희석, 김운수, 정경희씨가 송파산대놀이, 제주 칠머리당굿, 태권으로 인간문화재 인정서를 받았다.

계시판

▲찬불가경연대회=조계사청년회(회장 이상상)는 7월8일 오후시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회 10개 부서가 동참하는 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735-3724

▲창립법회=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반)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7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8-3386

▲초청대법회=부산 보현불교대학(학장 보현)은 6월21일~27일 오전 10시30분 한국불교의 거승 11인을 모시고 천마산 천왕사에서 초청대법회를 갖는다. (051)253-0681

이전 통도사 독일포교원 방문

이전 통도사 독일포교원 방문 (주지 병오스님)은 11월1일 법당을 이전한다. 이전장소는 Neve christ str. 4(Aufg. I) 14059 Berlin BOMJUN Sa.e.v. (GERMANY). Tel/FAX 0049-30-3256440.

"공권력 만행 좌시할수 없다"

6·6교권유린 대책위원장 효림스님

"지난해 정부공권력으로부터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가 세차레나 유린당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6일 한통 사태와 관련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맞서 '6·6교권유린 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맡고 있는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은 정부의 무책임과 정책부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정부공권력의 만행입니다. 더구나 개혁종단의 대사회 융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정

지하고 도량을 수호하는 일이 곧 이 자리를 성스럽게 갖추어주는 것이며, 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명우 기자>

도선사 새 신도회장 김성호씨

"청담스님의 큰 원력과 행위를 바탕으로 삼보를 수호하는 한편 모든 신도회원들이 부처님 참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도봉산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신도회장에 취임한 김성호씨(성종사 대표)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신도교육·자비실천에 주력"

김회장은 단순히 절에 나오는 신도가 아니라 도선사가 내걸어가는 주인공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 개설을 비롯 기존신도들에게도 근기에 맞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 신도의 실천덕목이라고 말하는 김

<김중근 기자>



전국비구니회장 이취임식

전국비구니회 제 5대 회장 공우스님의 취임 및 전 회장 혜춘스님의 이임식이 지난 13일 마포 석불사에서 거행됐다.

비구니회원들과 일면(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강한필(불교방송 사장) 최정의 본지 편집국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 광우스님은 인사말에서 "비구니들의 잠재된 능력을 십분 발휘할수 있도록 제도여건을 마련, 종단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륜대종사 탄신 113주년 기념행사

'대륜대종사 탄신 113주년 및 제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 1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포교와 교육에 힘쓴 대륜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의 헌신기도 함께 거행했다.

태고종 전종정 덕암스님, 이은



영각사 국내최초 탑골법당 기공식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지난 11일 영각사 경내에서 국내 최초 탑골법당 영묘전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현스님(좌로부터) 등이 기공식 시 하영수 시흥시장, 제정규 국회의

원, 목정배 등국대 불교대학원장, 송석구 등대종장, 영각사주지 현 법스님,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현스님(좌로부터) 등이 기공식 시 삼을 했다.



현대불교 부산지사 개소식 '성황'

본사 부산지사(사장 이종관) 개소식이 지난 10일 오후3시 동구 법일2동 소재 동보빌딩 4층 강당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해충(대한불교신문 사장), 본사 김광삼 사장과 최정의 편집장, 심산(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서주(소림사 주지), 해원스님(한

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등을 비롯하여 광정출 국회의원, 김현욱 전 내무장관, 김현숙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부산불교문화진흥회 회장, 우관수 불교TV 부산지사장, 본사 김광삼 사장과 최정의 편집장, 심산(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서주(소림사 주지), 해원스님(한

13개 은행 40여명 대표 활동

법회 창립 지원 복지시설 정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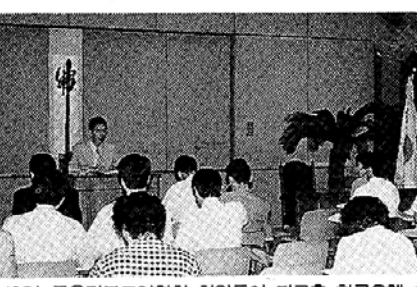
"신이 높아야 물이 멀리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구도행(求道行)이 치열해야 자비행(慈悲行)을 멀리 넓게 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禪불교에서 강조하는 종제기용(從體起用: 體로부터 용을 일으키는)의 도리를 설명한 말이죠"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 한국은행 15층강당에서는 김호성법사(백화도량 상임법사)의 강연으로 전국금융단불교연맹회(운영위원장 하룡이, 한국은행 자금부과장) 소속 30여명의 회원들이 지친 하루일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법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전국금융단 불교연

지난달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반~9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본교리 강좌'는 처음 한일은행신행회들 13개 은행에서 3명씩 구성된 연합회 운영위원들의 신심(信心) 고양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일반회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이제는 일반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92년 7월3일 창립된 연합회(초대위원장 윤원환, 신탁은행 마산남지점장)는 85년 한국은행불교회 창립을 기점으로 올해 동화은행·농협 불교회까지 모두 13개 은행을 회원단체로 갖고 합동법회 개최지원, 각 은행법회 창립지원, 연동행사 합동



◇ 지난 12일 금융단불교연맹회 회원들이 퇴근후 한국은행 15층강당에 모여 김호성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참여, 합동연맹정진법회(연4회 이상) 개최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직은 운영위원 체제라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룡이 위원장은 지난 3월26일 각은행대표 40여명과 함께 원주 성불원을 방문하는등 연2회 이상 장에 인, 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건수한 고마움으로 그들을 찾고 있다.

김재경 기자

성어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4-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뜻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대히 반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뜻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키려 하면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무라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 물이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42장경은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뜻다 이해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라즈니에 강의 황명우·이강욱 옮김 신국판 전22 / 각권 1500원

벗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와 그대 재물을 닮았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원·스·님·에·세·이

고적인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市)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열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늙은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특유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 산길을 닦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 있습니다.
- ▶ 혼자 사는 이의 조흔한 맛이 있습니다.
-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문법 체에 걸려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쪽